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최게하와 천국이 가까워졌나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경현 편집:양재웅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

2007년 제2차 청지기훈련
6월 15일, 금요찬양집회 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질'은 더욱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있지만 참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있고, 잃어버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제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아니라"(요일 4:10)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기초에 바로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만이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요일 4:7)

이제 청지기훈련이 12일 남았습니다.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구역, 지역 그리고 25개 교구가 하나되어 청지기훈련을 사모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실 사랑의 복음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세심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6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믿음으로 나아와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불쌍히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오늘(3일),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영아부터 중등3부의 선생님들을 위한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생님들이 먼저 보혈로 정함을 입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이로써 2007년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를 통하여 제1 · 2 · 3교육위원회에 속한 학생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껏 해온 경험과 지식에 의한 준비가 아니라 성령께서 때마다 주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학교 ·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히 10:22)

*제교육위원회 고시강습회 오후 12:20, 제교육관 507호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요일 12:24)

삼손과 오늘의 신자들

7:21) 아마도 우리는 땀과 박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한 패턴인 삼손이 좋은 예가 된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 범죄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사 21:25)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블레셋은 철벽 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여기서 블레셋이 현명한 것은 무력 이 아닌 정치, 문화, 종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흡수하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같이 되도록 성공, 명예, 부귀로 유혹하고 있다. 참으로 신자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력 있는 영향력도 잃고 말 것이다.(롬 8:5~7; 마 5:13,16) 신자는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삼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였다.(사 14:3)

어릴 적에 무서운 꿈을 꾸면 부모에게 달려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것이 곧 권위가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안위감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반대로 권위를 의심해 보고 가르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를 해치고 만다.(롬 13:1,2)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자신의 재판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요 19:10,11) 우리는 이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자체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권위의 원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시 68:5,6) 거룩한 처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곧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어려운 데 거하는 과부를 보호하시는 재판장 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준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 홀로 교만하여 고립되고 지체로운 위로를 멀리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한다.(잠 8:13)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개개인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일성(Unity)이다. 즉 각 지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하나가 된 몸 전체를 원하신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이다.

어떤 이들은 권위를 무시한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무시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정부를 향해 반대할 수밖에 없을 때 기다리면 이 정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설 때다. 예수께서도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고깃고기를 잡아 세금을 내게 하셨다.(마 17:26,27) 하나님은 세금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다.(롬 13:6,7)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하신 말씀이 이 이유에서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물로 드리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빌 2:6~8) 그러나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속삭인다. “권위에 순복하지 말고 그 권위 위에 너를 세워라. 정복하라. 성공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미련한 자들의 높아짐이다.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할 때에 우리는 모든 만 역의 아버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취하여 결혼식을 올린다. 이것은 매력적인 문화와 그는 두 문화를 정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삼손은 분노하여 그 여인을 그 아버지 집에 맡기고 돌아오고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 한다.(사 14:19,20) 그 여인은 다른자의 아내가 되었다.(사 15:2,3) 즉 삼손이 그 여인을 심히 미워한 줄 알았음에도 삼손의 원수에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친구가 되었다. 삼손은 그녀의 여동생을 취하여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의 분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쏟으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얹었고 꼬리 사이 사이에 햇볕을 달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간에 불을 붙였다.(사 15:4,5)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랐다. 이것이 곧 그 여인이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받을 형벌의 협력이었다.(사 14:15) 우리들은 마귀와 상통할 수가 없다. 마귀는 처음부터 물리쳐야 한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에 분노하여 복수한다.(사 15:7,8) 큰 전쟁이 시작된다.(사 15:9)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살고 있던 시대이다. 아주 편한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왜 우리를 치려고 오느냐?”고 물을 정도이다.(사 15:10)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의심하게 된다. 그들은 세속과 타협하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자들이다. 말씀의 권위에 반역한 자들이다.(사 15:11) 유대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KINDNES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alatians 5:22)*

The Holy Spirit is God. H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bringing us to Christ through different methods involving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He lives in each Christian individually, not as a group. He produces His fruit in those who walk in dependence on Him. The Bible specifically tells us,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Eph. 4:30), and "Do not quench the Spirit." (1 Thes. 5:19) To grieve the Holy Spirit means you do not listen to Him, but instead choose to follow your own way, which makes His fruit within you begin to decay. To quench the Holy Spirit means you continually choose to walk in your own passions and desires, which makes His fruit within you rotten. Thus, if you grieve or quench the Holy Spirit, His power within you decreases. So,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means you need to rely on Him, not yourself,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carry out the desire of the flesh." (Gal. 5:16) Today's Bible verse talks abou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nd today's sermon focuses on one of its elements: kindness. As Christians, kindness should be evident in each one of us.

Kindness is a spiritual fruit that can be seen in God Himself. Ezra prayed, "...But You are a God of forgivenes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ingkindness; And You did not forsake them." (Neh. 9:17) David sang, "Blessed be the Lord, For He has made marvelous His lovingkindness to me in a besieged city." (Ps. 31:21), and "For His lovingkindness is great toward us..." (Ps. 117:2) David also reminded himself and God's people that the Lord God is the One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Ps. 103:4) Isaiah recalled the Lord's words to the tribe of Judah, "In an outburst of anger I hid My face from you for a moment, But with everlasting lovingkindness I will have compassion on you." (Is. 54:8) God's kindness is abounding, marvelous, loving, great, and everlasting. As His kindness touches us, so our kindness needs to touch others. The Bible tells us,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God in Christ also has forgiven you." (Eph. 4:32), and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Rom. 12:10) Love is kind. (1 Cor. 13:4) Your development and growth of faith requires diligence, especially in brotherly kindness. (2 Pet. 1:7) Does your life reflect the same kindness you have received from the Lord?

Kindnes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Christian speech. Unkind words that come from pride and greed take a person down, but kind words build them up. As a Christian, you need to guard the use of your tongue, "For we all stumble in many ways. If anyone does not stumble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able to bridle the whole body as well." (Jas. 3:2) Your mouth should not spew out blessing and cursing. (Jas. 3:9&10) A believer's tongue speaks in kindness. Harshness of speech is very harmful to the cause of Christ. Harsh words cannot be recalled. They wound those we love. Kind words come from the Holy Spirit and bring comfort, encouragement, and edification. They build faith in others. Does your tongue speak with kindness?

Kindness is a dimension of love that Christians can share with others through their material belongings. Do you show kindness with your provisions? The early church showed great kindness in this way, "And all those who had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and they began selling their property and possessions and were sharing them with all, as anyone might have need." (Acts 2:44&45) They also helped in the collection for the saints. (1 Cor. 16:1) Kindness in giving is called for in the Bible, "Give to him who asks of you, and do not turn away from him who wants to borrow from you." (Mt. 5:42) Just a little sustenance, like a cup of water, can go a long way, "For whoever gives you a cup of water to drink because of your name as followers of Christ, truly I say to you, he will not lose his reward." (Mk. 9:41) Ephesians 4:28 says, "He who steals must steal no longer; but rather he must labor, performing with his own hands what is good, so that he will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one who has need." Does your kindness include your funds, materials goods, and other personal resources?

My dear friend, selfishness reveals your degree of carnality, whereas kindness reveals your degree of surrender to the Lord. Do others see the kindness of Christ in you? Do you show your friends, neighbors, and associates how big and important you are, or do you demonstrate to them how kind you are? Do they see your pride or do they se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The goal of the Holy Spirit is to develop the character of God in you and me through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I hope you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indness, so that others can see God through your life. Amen. 🙏

다음 주일 설교

자 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22)



김성관 목사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다양한 열매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한 무리가 아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존하며 걸어가는 신자들 속에 그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시들게 만듭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썩게 만듭니다. 이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오늘날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는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

자비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니사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느 9:17) 다했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라”(시 31:21)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시 117:2) 다했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되새겼습니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시 103:4) 이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54:8)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고, 놀랍고, 자애롭고, 위대하며, 영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의 자비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롬 12:10) “사랑은 온유하며”(고전 13:4)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형제 우애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후 1:7)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자의 말에 큰 영향을 주는 자비

자비는 신자의 말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교만이나 탐욕에서 나오는 거친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말은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약 3:9,10) 신자는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거친 말은 그리스도에게 매우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한 번 내뱉은 거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에 자비로운 말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변화시킵니다. 자비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말은 자비로 가득하십니까?

사랑을 나누게 하는 자비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로 자비를 베푸십니까? 초대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44,45) 그들은 또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준비했습니다.(고전 16:1) 성경은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 물 한 컵과 같이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절단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막 9:41) 에베소서 4:28은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은 자신의 재물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자비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친구나 이웃, 동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교만을 보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보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성령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비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5. 30.)

성령의 열매 “희락”

(갈라디아서 5:22)

갈라디야교회는 점점 변질되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갈 2:16)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대치된다. (갈 5:17)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루게 된다. (롬 7:23,24)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 (롬 8:13,14)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닌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앞세우고 있다. 물론 막무가내로 행위와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같은 교묘한 수법이 더욱 복음을 흐리며 위험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단순히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향하는 소위 ‘율바의 것’이 육체의 소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성령의 소욕과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 많은 교회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이 되고 있다. 참으로 이것을 분별해내기 쉽지 않다. 방법은 오직 하나 ‘자기 부인’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은 기쁨의 근원이다. 구원을 간직한 자만이 누리는 희락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시 51:1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 434장) 이전에는 나의 돈, 가정, 명예 등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오직 구원을 가능케 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무한 영광이며 기쁨이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 189장)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럴 때 우리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사를 경험한다. (요일 1:7)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신다. (요 1:12)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롬 5:1) 구원의 기쁨은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 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오직 은총의 자녀만이 충분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요 15:11)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요 15:5)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매순간 솟아나는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자신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찬 217장)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보혈로 가득할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요 16:24)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이 드린 기도를 잊고 있는가? 기도했음에도 우리는 쉽게 잊는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4)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찬 397장)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롬 8:15,16) 잊은 성령에게 보충하기 위해 더욱 확실하다. 특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간구하신다. (롬 8:26)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가? “나의 믿을 약할 때 주 날 붙디라.” (찬 423장)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

기쁨은 다른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끈다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행 2:46,47)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구원의 기

쁨,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찬만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리스도께 돌아온다. 적인 한 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 (눅 15:7,10) 이 기쁨을 위해서 참기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히 12:2)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찬만한 삶을 살자. 기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엡 4:30 ; 살전 5:19)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살전 5:16~18) 온전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찬만할 것이다. 결국 이 기쁨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다. 기쁨의 복음으로 찬만하자. 기쁨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 172장) 아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는 4교구

“우리는 다 양 갈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사 53:6)

교구장으로 4교구를 섬긴 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히 깨닫는 것은 교구의 부흥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혈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매일 구국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교구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혀 있는 세상의 답들을 보혈의 은총으로 허물어 달라고 애써통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 확대 개편을 통해서 3교구의 도독동과 5교구의 개포동·포이동 지역이 합쳐져서 4교구로 새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4교구는 282세대(715명) 7개 지역 2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0명의 일꾼들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장을 중심으로 부지역장, 구역장, 관할이 하나가 되어 각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을 확인하며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남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구, 18명의 남성 구역장을 세우고 매일 불례 주 금요일 남성도 영성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6월 첫째 주부터 교구의 일꾼을 중심으로 하루(월~목) 한 시간 (저녁 7시~10시)에 연수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소명감을 확신하고 교구의 능력을 힘입어 어느 곳에서든 기도의 불씨가 되어 매미튼 영혼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둘째 주일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 식구(부녀서도 그 동안 교구모임과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지 않아 하느님 댁에서 서막서막한 교구의 모든 식구들과 안 믿는 가족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해온 태산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엡 4:13,14)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교구 모든 식구들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걸고 자랑할 것이요”(갈 6:14)라는 고백 가운데 기쁨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히 3:1)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히 12:2)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안성현(현로, 제4교구장)

오직 주님의 도구이기를

6시간의 비행 중에 '그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기대를 하니 여러 감정이 교차하였다. 그간 여러 번의 선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밖에 없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의지와 불법적인 무의식들이 모두 사라져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쓸모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가 되길 기도했다.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여 영혼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때로는 선교를 방해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나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은 기도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였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선교지에 먼저 가 계셨고 은혜 중에 사역을 마쳤다.

주님, 물 주시고 빛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하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다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곳의 전통, 문화, 생활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의 우상, 눈의 우상, 생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진리가 예수님께만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복음을 받는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진리로 부흥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인숙(집사, 2교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나는 면려회 친구들과 한강에 가서 전도를 하였다. 전도를 하다 보니 인상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때 함께 갔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받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지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왜 안 가지고 가는 걸까? 교회가 싫은 걸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컸다.

드디어 새생전 전도일이 되었다. 나는 면려회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인형극 공연을 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나는 정말 많이 기뻐했다. 다음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준비할 것이다. 특히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 어떤 친구는 벌써 6명이나 전도를 했는데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 쾡게는 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들으시니까! 더욱 기도하며 꼭 전도할 것이다.

박지윤(소년부)

"검은 구름 덮히고 광풍 일어도"

24교구 3팀

언어 장벽과 폭우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지만 기도하고 다음 날 첫 마을에 들렀더니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가 되어 마을 주민이 모두 회관 앞에 구급차와 같이 모여 있어 발걸음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마을부터는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순탄하게 축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어린 아이가 받은 전도지를 빼앗고 오 토바이를 타고다니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복음을 받는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진리로 부흥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선교를 떠나기 3일 전 갑자기 오른쪽 발에 인대가 늘어나고 염증까지 생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팀장과 기도 동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꼭 가야겠다는 믿음으로 준비를 하였다. 금요일 새벽 4시, 출발하려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리를 약간 절기는 했지만 걸을 수 있었다. 사역지에 도착해서는 통증도 없었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힘이라고 믿는다. (장경희 권사)

가는 날부터 먹구름과 폭우 때문에 사역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간구하였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주시며 우리를 사역지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때 무슬림 학교에서 운동하며 놀던 학생들이 문을 열어주어 선교하게 하셨다. 겉보기에서는 핍박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자를 만났지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홍현미 권사)

눈꽃술이만한 비까지 내려 사역을 못하고 있었다. "검은 구름 덮히고 광풍 일어도~" 찬송을 부르며 하늘과 마음을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을 걷어냈다. 거치말처럼 하늘이 밝아지며 빗줄기도 줄어들었다. 사역이 시작되었다. 밤과 사람들의 협박으로 위험을 느끼기도 했고, 전도지를 찢으며 저항하는 아이들도 만났고, 벌레에게 물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릴수록 더욱 강해진 믿음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우리 팀은 기쁨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영광이 임함을 느꼈다. (신우성 권사)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 아주머니 한 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앞섰지만 상황은 반대였다.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며 서로 안아주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했다. (주은숙 집사)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무슬림 마을 사람들은 공격적인 눈초리로 우리들을 응시하였다. 이동한 마을에서 축조전도를 시작하였으나 현지인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곳에 오래 머물면 경찰에게 체포당한다고 경고까지 하였다. 우리 팀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핍박이 심한 마을에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이달옥 장모)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1일(월)~6월 1일(금)	18·20교구 연합	김영환
5월 23일(수)~5월 30일(수)	19·2·10·18교구 연합	인준오
5월 23일(수)~5월 31일(목)	17·8교구 연합	최창하
5월 24일(목)~6월 1일(금)	10·9교구 연합	정철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8일(월)~6월 5일(화)	11·12교구 연합	조영철
6월 2일(목)~6월 9일(목)	8교구·청년부 연합	조종민
6월 2일(목)~6월 9일(목)	7·3·6교구 연합	송한천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6월 23일(목)	정영미·전혜영(예배대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4일(월)~6월 13일(수)	9·10교구 연합	김종홍
6월 5일(화)~6월 13일(수)	22교구·대학·청년부 연합	한홍연
6월 6일(수)~6월 13일(수)	24교구	진학래
6월 6일(수)~6월 14일(목)	24·16교구 연합	박재천
6월 6일(수)~6월 14일(목)	24교구	정금수
6월 7일(목)~6월 15일(금)	12·11교구 연합	심학민
6월 7일(목)~6월 15일(금)	4·5·14교구 연합	박준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몇 주 전부터 금요찬양집 등을 통해서 「거룩하시다」 찬양을 연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해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불로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교회에서 제작한 「주의 영광」 CD를 집에서는 물론 출퇴근길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을 때 나의 집과 차 안에는 벌써부터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임재해주셨습니다. 세밀히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강림 주일 예배!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에도 임재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할 때, 나의 기도를 세밀히 들어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찾아와주셨고, 사립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무겁고 힘들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이끌어주신 계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시다」를 찬양할 때,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네요.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비록 죄인된 모습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성령의 은사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강림주일 예배를 통하여 강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 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 더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담대하게 살아갈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으며 살아갈길 기도합니다.

박노익(집사, 23교구)

30년 전에 받은 파란 성경책

결혼하면서 남편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초파일이면 온 가족이 절로 물려가던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나는, 결혼 후 유일하면 남편을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로 향하곤 했다. 5년 전, 바쁘게 사느라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있던 우리들에게 봉사를 시작하라는 교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회교 봉사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셨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도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선교훈련이 시작되면서 나는 두려웠다. '내가 가서 과연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있으며 말씀을 알고 있기에 전하러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를 결정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겠지!'라고 자신을 달래며 훈련을 받았다. 마침내 국내에서 전도자 한 장도 타인에게 권해 보지 못했던 나를 선교사역에 써 주셔서 첫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님은 은혜로 변화의 기쁨을 누리던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30여 년 전 내가 아주 어릴 적, 고향 재두포의 시골 동네에 모여 휴잔한 하며 놀고 있을 때, 옥지에서 왔다며 파란색의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며 꼭 읽어보라고 당부하던 분들이 생각났다. 그 때 나는 무엇인가 주는 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받아두고 좋아하며 집에 갖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 성경책이었다. 그 파란색의 책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적혀 있었고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 이야기여서 조금 읽다 말았다. 그렇지만 그 성경은 내가 고등학교생이 될 때까지 항상 내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당시에 나는 알지 못 했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신 것이 되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이후 나는 전도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지, 그리고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전의 나와는 달리 지금은 진정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언젠가가 우리 식구 모두가 한 교회에 모여, 한 주님 섬기며, 한 성경 볼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다.



강문옥(집사, 5교구)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늘 나 자신에 대한 헛된 영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면 죄투성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라고 외치는 군중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매우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그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박해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에서 멀어진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말하고도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좇아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요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며,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일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와 공로도 함께 잊어버리는 나를 너무 조곤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죄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정은(집사, 청년부)

예수님! 분초마다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남매와 실망 당한 뒤에 고통을 안고 천원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되지 않아 김성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위로 받고 싶었고 세상에선 복음과 사는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목사님은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대담"이라고 말씀하심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말씀 해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향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완악한 저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맞추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새벽 강단의 전도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였고, 세상을 향하여 달음질하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초마다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월요일마다 보혈로 나를 적시었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이제는 저는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 거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박경희(집사, 1교구)

새가족양육부 5월 수료자

복음이 중요합니다!

♥ 안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항상 감사하며 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 결혼할 여친과 가족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항상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친구같은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동근)

♥ 어머니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로진)

♥ 예수님은 저를 위해 값없이 목숨을 내놓으시며 희생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을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인내, 기도 생활, 욕심 자체입니다. (문희옥)

♥ 진정아버님께서 돌아간 후, 작년 12월에 주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나 죄 없이 온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헛된 세상과 느꼈으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점은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김영영)

♥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이 중헌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점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바라 키레코)

♥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뀔을 느낍니다. 달라진 점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늘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김영철)

♥ 같은 직장 동료라 할 뿐 와서 신앙생활을 예뻐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두나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수)

(박진국)

제2차 청지기훈련에 즈음하여

처음에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동안 훈련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제가 주님께서 맡긴 교회에 주신 일꾼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지기훈련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제1차 청지기훈련 "그리심으로의 교회"(골 3:26)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셨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징표로써 저의 심령에 채우니 저의 마음은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합할 때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직분을 맡아 놓고 소홀히 할 때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회개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복음에 빛난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요일 4:7-11)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보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좁은 생명의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최영래(집사, 24교구)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43	최정민	9	청년2부	장세형(1)
944	노종식	6	청년2부	정호진(7)
945	장진호	6	청년2부	조은비(1)
946	조은비	3	중등3부	김지현(1)
947	이동한	8	소방부	이성일(17)
948	김지현	24	청년1부	정은호(23)
949	홍성수	17	청년1부	김봉태(16)
950	서진열	14	청년3부	김지현(13)
951	장재근	14	청년1부	김동철(13)
952	모지아	25	외선부	강성재(18)
953	이종민	13	청년2부	김석재(14)
954	박석순	9	소방부	최명호(23)
955	은귀순	1	청년2부	전성일(13)
956	조영자	2	청년2부	최계열(13)
957	이오상	10	청년1부	김철남(13)
958	한호순	19	청년2부	장병준(8)
959	김대현	24	청년1부	김예숙(16)
960	신광현	17	청년1부	안정진(17)
961	정영자	22	청년3부	이미숙(21)
962	임선영	6	중등2부	권수정(8)
963	태디	25	외선부	양승준(21)
964	트름	25	외선부	박성남(1)
965	윌라	25	외선부	강은희(4)
966	최광진	1	교역자	
967	이재광	10	소방부	김성현(18)
968	할	25	외선부	도승재(17)
969	황가	25	외선부	김영호(17)
970	카말	25	외선부	
971	김도현	6	중등2부	문경민(23)
972	김은희	6	중등2부	최규원(12)
973	전민철	8	청년2부	이영환(1)
974	신상수	19	청년2부	최은비(1)
975	고민정	19	청년2부	최현희(24)
976	김병식	16	청년1부	황익수(16)
977	박재현	6	청년2부	김규환(10)
978	심순영	8	청년2부	차종은(3)
979	문경진	8	청년2부	황은희(8)
980	우성도	22	소방부	황윤성(22)
981	박익신	13	청년1부	
982	박지훈	13	대학부	
983	송보라	16	대학부	최정현(8)
984	김영숙	6	청년3부	
985	전은하	1	마리아	
986	신규식	23	소방부	
987	심주인	13	청년2부	김은숙(13)
988	조아라	20	대학부	유이나(22)
989	전금영	2	청년3부	전영환(2)
990	한향애	2	청년3부	이창준(14)
991	이진희	23	청년1부	김미자(23)
992	김진미	23	소방부	황정희(13)
993	이준자	18	청년2부	최혜준(3)
994	김영재	19	청년2부	하정숙(23)
995	추창욱	6	청년1부	오경숙(5)
996	리지호	25	외선부	최길재(12)
997	이도훈	17	청년1부	신종미(17)
998	고미	25	외선부	이정미(3)
999	신경애	3	청년1부	윤 순(13)
1000	김연경	1	대학부	박민경(5)
1001	박시형	6	청년1부	이진규(6)
1002	노민다	25	외선부	류태준(17)
1003	아산가	25	외선부	김성훈(17)
1004	탐이	25	외선부	지아연(16)
1005	황영두원	25	외선부	신교신(24)
1006	조희영	25	외선부	정희희(11)
1007	예민주인우	25	외선부	여진재(7)
1008	배로니카	25	외선부	박미숙(15)
1009	신혜신	1	대학부	윤보영(8)
1010	김경화	22	대학부	정지혜(22)
1011	송영미	11	예배대부	이유미(8)
1012	민투	25	외선부	전연미(4)
1013	리문	25	외선부	박남주(4)
1014	김민정	12	청년2부	박성남(5)
1015	배서은	25	외선부	박민희(12)
1016	신현재	13	청년2부	김옥진(20)
1017	서민	25	외선부	김희진(5)
1018	윤신미	25	외선부	김진경(2)
1019	전현근	4	청년1부	문성숙(18)
1020	이승훈	15	청년1부	문성숙(18)
1021	전은영	11	대학부	임세현(11)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